

2013년 제52회 도민체전 '성공 예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등 발빠른 지원체제 구축 본격 준비 돌입
사천탄생 600주년, 항공우주산업도시 사천호 '비상의 날갯짓'

사천시는 시민들이 열원했던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지난 4월 19일에 사전유치를 확정짓고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달 30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현판식을 갖는 등 준비를 위한 지원체제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5월초 사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해 시장, 시의회, 시의회 부회장, 도의원,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30일 사전시청 민원동 2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종합상황실장은 체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급급 8월까지 3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며, 9월부터는 운영팀과 시설지원팀 2개 팀에 1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대회준비 종합기획과 경기장 시설보완 등 대회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6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부 24개팀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에서 개최까지 7회 정도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팀별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 반영 하는 등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삼천포해상관광호텔 구룡에서 도의원, 시의원, 결연기관단체 대표, 가맹경기단체장, 체육회 위원, 관내 고교 학교장과 체육교사,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2013년 도민체전 성공개최와 시민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도민체전 경기종목은 육상 외 25개 정식종목과 바둑, 산악이전시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총 27개 종목이며, 18개 시·군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도민체전 반계기를 넘어 시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어렵게 대회를 유치한 만큼, 선수단이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12만 사천시민과 유관기관단체 등



사천시는 지난달 30일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는 등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그 어느 대회 때보다 풍성한 대회기록과 성공적이고 화합 감동체전이 될 수 있도록 850여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남면 소재 초전공원에서 참가자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사천시민건강 걷기대회에 앞서 초전공원에서 참가자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제52회 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시민건강 걷기대회' 성황

시민 등 2000여명 5.5km 걸으며 결의 다져

사천시(시장 정만규)와 사천시생활체육회(회장 정철용)는 지난 5월 19일 사남면 소재 초전공원에서 시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도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사천시민 건강걷기 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2만 사천시민의 열원인 제52회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면서 시민에게 도민체전 개최 상황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남면 소재 초전공원에서 집결하여 약 5.5km

의 코스(초전공원→유천사거리→하수도사업소→해안도로→방지마을→게이트불구장→태양유전→초전공원)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2013년 제52회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대회에 걸맞은 특별상을 시상하고, 현장에서 생수와 기념품, 700여점의 생활용품 및 세탁기, 전자렌지, 자전거 등 15점을 추첨을 통해 지급했다.

한편, 사천시 보건소(소장 유영권)에서는 최근 들어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금연 홍보 캠페인과 건강강진 홍보관'을 운영했고, 금연홍보 풍선 날리기와 보건홍보 리플릿도 배부했다.

아울러 정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도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이 고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원하자며, 시민과 체육인이 오늘과 같은 열의로 도민체전에 임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

서포 종합정비 사업 등 관계부처에 1,750억원 지원 요청

사천시가 내년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만규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시 간부공무원을 대동하고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을 방문, 관련부서장 및 실무관을 만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2013년도 국고예산 확보대지원을 건의했다.

2013년은 민선5기의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금년보다 195억원이 증가한 1,750억원으로 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 중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정짓고, 상남면권역과 용현면권역 중립정비사업 등 3개부처 12건 464억원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고예산 확대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정시장 일행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2013년

도민체전 노후체육시설 국비지원액 중 지난해 23억원에 이어 금년에 30억 5천만원을 확보해 도민체전과 관련한 국비지원 전액인 50억 5천만원을 마무리 짓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사천시에서 건의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는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확보를 위해 항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에 공익용 태양광발전소 만든다

사천시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 OCI 등과 MOU 체결

사천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OCI(주),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함께 '나눔발전소'를 설립해 향후 25년간 에너지 빈곤층 및 제3세계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월 24일 사천시청에서 정만규 사천시장, 하일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김상열 OCI(주) 부회장, 김정욱(사)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 태양광발전사업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의 '저탄소 에너지 복지실현 공동이행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200억원 중 OCI(주) 240억원, 에너지나눔과평화 60억원 등 민간자본이 300억원이 투자되고, PF자금(수익금담보대출) 900억원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천시가 건물옥상이나 유휴부지를 임대하면 OCI와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이를 활용하여 40MW 규모의 공익용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에너지 빈곤층에 향후 25년간 지원하게 된다.

사천시는 하루 평균 태양광 발



지난달 24일 사천시청에서 정만규 사천시장, 하일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김상열 OCI(주) 부회장, 김정욱(사)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은 '저탄소 에너지 복지실현 공동이행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전시간이 4시간에 달하는 지역으로 국내 태양광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되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MOU는 지자체, 공익사업법인, 기업이 공동 협력하는 세계 최대, 유일의 신·재생 에너지 공익 프로젝트로 기업과 지자체간의 모범적 그린에너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을 희망하며, 나눔발전소 건설로 25년간 이산화탄소 54만톤을 감축하여 2억 2천톤의 수목대체 효과를 창출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천시와 함께하는 OCI(주)는 세계 태양광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작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00억을 투자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총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솔라스쿨(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운영순의 전액을 국내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나눔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1.4MW의 공익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정만규 사천시장 읍면동 방문 성료

정만규 사천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가져 향후 시정운영에 필요한 의견회환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사전읍을 시작으로 5월 7일 남양동까지 14개 읍면동 순방을 마무리했다. 순방은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는 등 일정을 간소화 했으며, 읍면동 직원 격려와 시정방침 및 운영방향 설명,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시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시는 이번 읍면동 순방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240여건에 대해 사안별로 법령이나 예산상 한계를 분석해 연내 추진과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순방 중에 건의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이 불가하거나 올해 안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삼천포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대체 임시시장 6월 1일부터 운영

동서동주민센터 옆 서부시장 유료주차장에 마련

사천시는 삼천포수산물시장(구 서부시장)의 시설후회로 시장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인근지역인 동서동주민센터 옆 서부시장 유료주차장으로 대체 임시시장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임시시장으로 사용될 서부시장 유료주차장 인근은 평상시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근 복개전 유료주차장과 제일제빙냉동 앞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

고 있다.

삼천포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삼천포 구항 개발과 연계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을 통하여 심심하고 청결한 수산물시장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 동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명품 수산

사천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시행

6월부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은 오전 0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제한

사천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정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달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

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관내 전 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은 오는 6월 두 번째 일요일(6월10일)부터 의무휴업을 시

행하게 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관내 점포는 총 5개소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2개소, SSM(탑마트 사천점·삼천포점, 롯데슈퍼사천남양가맹점) 3개소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은 다소 예상되나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에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4회 사천시 이·통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600여명 어울려 화합 다지며 새로운 도약 '한마음'

사천시는 일선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사천체육관에서 『이·통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만규 시장과 강기갑 국회의원, 최동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통장과 가족 등 600여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고, 체육행사와 어울림 행사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급변 행사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사천시지회(지회장 정운

실)의 주관으로 읍면동 7개팀을 구성하여 진행되었고, 일정은 1부는 식전행사로 단체출발기, 윗놀이, 2인 3각 등 체육행사, 2부는 개회식, 3부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o·x 퀴즈, 풍선탑쌓기 등 한마당 어울림 이벤트 행사 및 행운권 추첨 등이 있었다.

한편 정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4번째를 맞이하는 이통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계기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명품도시 사천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4회 사천시 이·통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지난달 18일 사천체육관에서 열렸다.

2012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 행사 개최

사천시(시장 정만규)는 지난 5월 20일 사천체육관에서 외국인주민 및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풍물패 소리누리팀과 댄스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한마음 놀이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인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라경자씨와 한국항공소속 박효범씨, 사천외국인자활복지센터(센터장 박종욱)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모범 결혼이주여성 부문에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회원 임의씨, 외국인주민부문에 스티리앙카출신 외국인주민



달산 아시아르다나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주요 행사인 놀이체험 및 대동놀이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울림의 시

간을 가졌으며,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가슴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사천 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언어소통과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랐다.

사천아카데미 제66강좌 육선 전 CEO가 말하는 '창조와 상상의 물결'

6월21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2층)

사천시는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육선, 이니시스 신화를 창조한 디지털의 대부 이금룡 씨를 초청하여 "창조와 상상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사천아카데미 제66강좌를 개최한다.

이금룡 강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광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삼성물산인터넷 사업부장

넷 경매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1999년 육선의 CEO로 취임하여 오늘날의 육선을 만들었고 코스닥 상장, 이베이를 매각을 성사시켜 회사를 불려일인간 본인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벤처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 '벤처기업의 대부'로도 불린다. 또한 SBS TV '아이디어 하우스' 심사위원으로 방송 출연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ubiquitous란 무엇인가』, 『고수는 확신으로 승부한다』 등을 출판하였다.

'디지털 선도사', '창조 경영의 전도사'로부터 전해 듣는 변화와 창조에 대한 이번 강의가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룡 회장
코글로닷컴 회장

- 강사약력
 - 인천광역시 출생
 - 삼성물산 인터넷 사업부장 이사
 - 육선 대표이사
 -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초대 회장
 - 이니시스 대표이사
 - SBS TV '아이디어 하우스' 심사위원 방송 출연
 - 코리아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
 - 코글로닷컴 회장(現)
- 주요 저서
 - 『ubiquitous란 무엇인가』
 - 『고수는 확신으로 승부한다』
- 상훈
 -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최우수 논문상
 - 벤처경영인 대상
 - 정보통신의 날 석탑산업훈장
 - 메세나인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사진으로 보는 5월중 우리 '사천시 자랑하기' 행사



재부 산포래산악회, 산성산 등산

재부 산포래산악회(산대장 최규수)는 지난 5월 10일 전남 담양군 산성산에 등산, 죽림원을 둘러보고 이지역의 수려한 가로수와 대나무 숲들을 관람하였다. 산포래는 매년 봄마다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리본을 달고 향포산행을 4년째 해 오고 있다.



달달이마라톤클럽, 부산하프마라톤 출전

달달이마라톤클럽(훈련부장 류진길)은 10년째 우리 고향을 알리고 자랑하며, 각종 마라톤대회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등 표창을 달고 출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출발, 강변길을 달리는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출전하였다.



다대마라톤동호회도 부산하프마라톤에

다대마라톤동호회(회장 한도기)는 지난 5월 20일 부산 낙동강 최남단다대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하는 국제신문 주최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등 표창을 달고 1만여명의 출전 선수들과 관람객 가족들을 상대로 우리 사천시를 자랑했다.



재부 남양향우회, 금정산 산행

재부 남양향우회(회장 백광석)는 지난 5월 20일 금정산에서 향우가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겸 산행대회를 실시하여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리본을 가슴 또는 배낭에 달고 우리 고향 사천시를 홍보했다.



재부 가천초동동문회, 와룡산 산행

재부 가천초동동문회(회장 김옥동)는 지난 5월 20일 고향의 명산 와룡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한다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을 하자며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리본을 배낭에 달고 고향을 자랑하며 산행을 했다.

축산관련차량 등록 대상자 의무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2. 6. 22(금), 09:00 ~ 16:00
- 교육장소 : 농업인진흥회관 2층 회의실(사천읍 사주리 154-2)
- 교육대상 :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
- 교육 이수시간 : 6시간(축산법규 1, 가족방역 3, 현장실습 2시간)

- 기본개념
 - 가족운반 등 농장출입 빈도가 높고, 농장주 또는 가족과 접촉이 높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 교육 의무화
 - 축산차량 소유자의 방역의식 강화로 사전 질병차단 및 확산방지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제 등의 의무교육)
 - 가족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의 관리 등)

- 의무 대상자
 - 가족,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완거,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교육신청 방법
 - 축산업종사자교육관리시스템(www.farmedu.com)가입 및 교육신청

-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시기 : 2012. 8. 23일부터

- 단속시기 : 2013. 1월부터
- 벌칙 및 과태료
 - 위 의무대상자 및 가족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담당 (☎831-3775)

2012.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1. 기준 개별공시지가(원/㎡)를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2. 5. 31
 - 대상 : 216,567필지
 - 열람
 - 방문열람 :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열람 :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 2. 이의신청서 제출
 - 기 간 : 2012. 5. 31 ~ 6. 29 (30일간)
 - 제출방법 :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 3.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831-2830~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6월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기 : 2012. 6. 16 ~ 6. 30.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 ☞ 지로 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농업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 납부 시 송금수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접속 로그인하여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CD/ATM에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관려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제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
 - 승용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연식별 경감율 = 년세액(지방교육세30% 가산)
 - 승합·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원~157,500원)
 - 자동차 차령별 차등과세 안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감량하되 최고 50%까지 감량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납부세액 : 당해 기본 세액 - [기분세액 x 5% x (차령-2)]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문 의 :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831-2870),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사전안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바,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민원과 함께 과세기준일에 임박하여 취득한 납세자들의 과세기준일과 부과지 시점 차이에 따른 세법적용 오해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따른 납세의무자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동법 제114조에 의거 2012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012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2012년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분
 - 2012. 7. 16 ~ 7. 31(세액의 1/2)
 - 2012. 9. 16 ~ 9. 30(나머지 1/2)
- ☞ 재산세가 5만원 이하는 1기분(7월)에 전액과세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12. 7. 16 ~ 7. 31
- 토지분 : 2012. 9. 16 ~ 9. 30

□ 문의 : 사천시청 세무과(☎831-2870~2871)

명예시민기자단 소식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재난 사고를 겪게 된다. 최근에는 사회전반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모든 사고는 예고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사회형태가 도시화·산업화되었고, 각종 건물과 교통시설 등이 대형화·고층화·지하화되고 있어 각종 위험요소가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가정에서는 고층 APT에 거주하면서 TV 등 전자제품과 가스레인지 등 각종 기구를 사용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 사고의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주부들의

안전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은 아직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뿐,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형태인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볼 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은 그들을 위한 각별한 안전대책 또한 필요하다. 가정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예방과 배려를 해주어야 하며 항상 안전에 대한 관심속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안전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안전 선진국이란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각종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선진국이 만든 물건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을 뿐,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고도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자율적 안전의 정신이 투철하다.

따라서, 안전 선진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정신으로 안전한 행동이 습화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안전을 준수한다해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사고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태도에 많은 부분이 관련 되어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면서 고민과 다른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 가족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할 때, 모든 일을 사소하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처리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안전에서는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면서 각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임을 확실할 때 가정의 모든 일과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의 고민과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는 고령자인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함으로써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명예시민기자 배성광

농작물 훼손하는 욕심의 손

날씨가 시원해지고 햇볕이 좋은 계절이 되면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코스로 주변 공원이거나, 자전거도로, 둘레길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선호하고 있다. 집집마다 승용차의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운동 부족현상이 생겨서 일과 업무로 운동 삼아 걷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길을 걷다보면 걷는 코스 주변으로 크고 작은 논밭에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어린 농작물들이 수줍게 싹을 틔우며 땅 위로 서서히 고개를

내민다. 보기에도 앙증맞고 어린 농작물들은 봄 햇살과 충분한 수분으로 곧고 튼실한 뿌리를 내려 잘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자라 각각의 열매를 맺고 터를 잡아가는 농작물을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결국에는 욕심으로 농작물에 손을 대는 이가 있다.

농부들은 농작물 하나하나를 자식 기르듯 정성들여 잘 키워 놓는다. 잘 키워놓은 농작물을 누군가 손을 대어 몰래 훔쳐 가거나,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있는 농작물까지 짓밟아 훼손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거리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니 둘레길이나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히 농작물을 훼손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둘레길이나 자전거도로 주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논밭의 농작물 훼손이 늘고 있다. 남의 귀한 농작물을 허락도 없이 훼손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문제다. 본인이 직접 땅 흘려 일군 농작물을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적당한 온도, 햇볕, 수분까지 농부들은 그 농작물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 그만큼 귀한 것임을 왜 모를까.

깊은 산골 마을이야 농작물을 훼손하는 짐승들을 쫓기 위한 방법으로 허수아비도 세우고 울타리를 치곤 한다지만, 농촌지역 곳곳에서 농사일도 바쁜데 농작물을 훼손하고 훔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매일 논밭에 보초를 서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야 그런 일이 사라질까. 나의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수록 까탈스러워지는 도시민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삼잡이나 시장 좌판에 물건들을 내놓아도 하나라도 더 팔려면 도시민들이 좋아하게끔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마늘은 껍질을 까서 내놓아야 되고, 배추는 잘 다듬고, 잔파는 일일이 손질해야 잘 팔린다. 묽은 소량으로 해야 되고, 싱싱해야 하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시골사람들이 씨 뿌리고 정성으로 키운 농작물이, 소비자에게 잘 판매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오늘도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며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농부들의 부지런한 모습들을 떠올려 본다. 농작물은 농부들의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명예시민기자 김경심

안전이 우선이다

삼천포 벌리동에 위치한 삼천포종합공설운동장은 삼천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유일한 체육공간이다. 5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야간경기를 겸할 수 있는 축구장과 실내수영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비롯해 농구장과 클라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조깅과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우레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시민 단체의 크고 작은 경기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이곳을 이용한다.

지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전국규모의 경기대회를 유

치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하고 적합하지 않은 규격 탓에 단순히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여러 난관을 겪고 시와 시민의 뜻을 모아 2013년 도민체전 개최희망 행사를 눈앞에 두고는 낙후된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민체전 개최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란 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연말 완공으로 체육시설 리모델링과 보조시설 증축공사가 한창진

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시민들의 운동공간이 부족하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곳을 통제한다며 인근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라는 사전 공시가 있었지만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직도 저녁에 이곳에서 걷기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전을 요한다. 공사를 위해 깊은 구덩을 파놓은 곳과 부수놓은 콘크리트를 돌고 있는데 트랙 곳곳에도 공

사 잔해들이 널려 있어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불이 꺼진 후에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 사고가 우려된다. 강력한 통제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운동하기 좋고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라 화면과 지면을 통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연일 접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시대 살고 있는 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새삼 되새겨지는 요즘이다.

도민체전 개최도 좋고 시민 자긍심 고취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명예시민기자 정영희

주 5일제 전면시행

주 5일제 전면도입 그 석 달을 바라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2, 4주 격주로 토요일휴일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매달 2회의 자율적인 토요일을 보내도록 하였으나, 준비 기간 7년이 지난 올 해부터는 전국 초, 중, 고교에서 그동안 사립학교에서만 운영하던 주 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주 5일제 전면시행으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은 토요일에 대부분 학교를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더불어 학교 활동 과정에서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주 5일제 수업은 학생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 5일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학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박물관

이나 유적지 등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단체, 체육시설기관,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 5일제를 시행한 지 석 달 동안의 활동을 지켜본 결과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시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려했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사교육 현장에는 학생들이 평일보다 더 많이 몰리고, 또 학원가에는 주말 불법 기숙학원까지 생겨 교육 과정의 수업량은 과거

와 같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학습 부담감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로 부모님의 경제사정은 점점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위화감을 갖고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컴퓨터 오락에 빠지는 부정적인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음을 가법계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3월부터 모두의 큰 관심을 받으며 시행한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벌써부터 왈가왈부하는 건 교외에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차츰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

사 잔해들이 널려 있어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불이 꺼진 후에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 사고가 우려된다. 강력한 통제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운동하기 좋고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라 화면과 지면을 통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연일 접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시대 살고 있는 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새삼 되새겨지는 요즘이다.

도민체전 개최도 좋고 시민 자긍심 고취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명예시민기자 정영희

납말맞히기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가로힌트>

- ①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많이 생기지 않는 기관.
- ② 연중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의 수.
- ③ 별의 위치나 움직임으로 점치는 복술.
- ④ 어떤 물건이 특히 많이 나는 곳. 개성은 인삼의 00.
- ⑤ 동물의 고기를 먹는 동물.
- ⑥ 불 끄려 나온 사람. 구원투수의 별칭.
- ⑦ 무대에서 연극 때위를 관객에게 보이는 일.
- ⑧ 술래잡기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 ⑨ 바디의 크고 사소한 물결. 00성 파도.
- ⑩ 일년 중 가장 추운 절기. 소한과 입춘 사이.
- ⑪ 등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 ⑫ 수출입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
- ⑬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00에 물들다.
- ⑭ 남극과 북극에 가까운 위도. 000지방.
- ⑮ 한방에서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⑯ 바람이 통함. 00구.

<세로힌트>

- ① 좋거나 긍정적인 점. 단점의 반대말.
- ② 무도의 기술. 특공 00.
- ③ 한번 만나 본 정도로 조금 알. 000도 없는 사이.
- ④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구를 제외한 액체 성분.
- ⑤ 이빨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
- ⑥ 오래되어 못쓰게 된 물건을 사고파는 가게.
- ⑦ 바늘 만한 것을 뭉뚱이 만하다고 한다는 사자성어.
- ⑧ 고기의 품질. 00이 좋은 한우.
- ⑨ 물 이상의 희박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⑩ 설악산 흔들바위 위쪽의 거대한 화강암 봉우리.
- ⑪ 서로 뜻이 맞아 어울린 패거리. 000이 되다.
- ⑫ 매달. 00휴가.
- ⑬ 인연을 끊는 글이나 편지.
- ⑭ 00이 약이요.
- ⑮ 시어머니와 며느리.
- ⑯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통함. 00한 고승.

■ 납말퀴즈 응모요령 ■

납말맞히기 정답을 오려붙여 2012년 6월 15일까지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천시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연	리	지	욕	
별	금	문	전	성
령	이	진	나	이
코	스	모	스	브
무	승	진	로	
부	고	동	문	소
개	그	맨	안	내
				문

2012년 5월호 정답 및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진주시 신안동 박서진 / 용강동 안희진
정동면 정순분 / 사천을 공재현
동곡동 박재준 / 벌리동 정미은
벌리동 장말순 / 사천을 정주환
용현면 배희진 / 부산 중구 박준업

“꿈은 이루어진다”

뇌성마비 축구단 '제니우스' 전국대회 우승

경남 유일 뇌병변장애인축구단인 사천제니우스(감독 조정래,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교사)가 뇌성마비장애인축구대회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대회인 "제22회 한·일 친선 사랑의 친구 품 우리 축구대회 겸 협맹코리아컵 제 9회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이 대회에서 사천제니우스는 사천 VS 곰두리 경기에서 4대 1, 사천 VS 충북 경기에서 12대 2, 사천 VS 서울 경기에서 6대 0이라는 큰 점수차로 3경기를 모두 석권하면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 날 경기에서 거미손 이운재상에 박문

성 선수, 산소탱크 박지성상에 정송원 선수, 감독 상에는 조정래 체육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천제니우스는 창단한 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체계적으로 단련된 훈련으로 전국 대회의 우승을 차지하여 뇌성마비장애인축구대회의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천제니우스 선수들의 숨어있는 저력을 전국에 보여주었고, 또한 경상남도과 사천시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천시 체육시설 공휴일 운영시간 변경

사천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장으로 휴일 없이 개방 운영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운용과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지난 5월 28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대

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경 운영한다.

운영시간이 변경된 체육시설로는 사천체육관, 사천공설운동장, 사주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삼천포공설운동장, 삼천포보조축구장과 납말대 축구장이 해당된다.

파행운행 도립사천노인병원 정상화

지난해 8월 도립정신병원 수탁기관을 순영의료재단에서 승연의료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진 9개월간의 논란이 일단락되어 정상화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5월21일 오전 조정위원회를 열어 도립정신병원 위탁여부를 심의, 5월24일 끝나는 승연의료재단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립정신병원과 도립사천노인병원의 수탁기관이 순영의료재단과 승연의료재단으

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앞서, 순영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 도립노인병원을 경남도가 선정한 승연의료재단이 위탁운영 하는데 합의하고, 수탁기관 변경으로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승연의료재단은 도립노인병원과 도립정신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한 노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노조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천읍 새마을협의회 소공원가꾸기 행사 전개



사천읍새마을협의회(회장 강경중, 부녀 회장 박혜순)는 지난 5월 4일 화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4대 중점 뉴새마을 운동 중 하나인 녹색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은 사천읍 관내 소공원에서 제초 작업과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그린 코리아 운동을 몸소 실천하였다.

사천읍자연보호협의회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펼쳐

사천읍자연보호협의회(회장 정재순)는 5월 22일 자연보호협의회원을 비롯한 자생조직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두랑 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유원지 주변 쓰레기 약 1톤을 수거하였고, 행사객들에게 쓰레기 퇴거자기가 홍보 활동도 같이 전개했다.

정동면 제19회 정동면민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제19회 정동면민체육대회가 지난 5월 6일 정동초등학교에서 정동면체육회(회장 한종태)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8개팀 2,000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각 마을별 특색 있는 입장식에 이어 5개 종목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어르신 화합 한마당과 팀별 노래자랑으로 모든 면민이 함께 어울리는 면민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이날 대회 결과 입장상은 화합팀(노천, 대신, 북상, 감곡마을), 종합우승은 행복팀(수청, 대곡마을), 준우승은 창조팀(풍정2, 3, 5, 6리), 장려는 봉사팀(동계 5, 6, 8리)이 받았다.

2012년 깨끗한 환경 가꾸기 정화활동 펼쳐

정동면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남무)에서는 지난 4월 26일 사천강에서 강창수 정동면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면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환경 가꾸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2012년 깨끗한 환경 가꾸기 기념식 개최 후 사천강(장산교~수청교)에서 겨우내 방치된 행락쓰레기 일제수거(2톤) 및 불량 홍보물(6점)정비를 병행 실시해 사천강 살리기에 앞장섰다.

사남면 사남면민현장 조형물 제막식 개최



사남면민현장탑상장물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지걸)와 사남면(사남면장 강연주)은 면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면민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고 100여명의 기관단체장과 마을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남면민현장은 2009년 면지발간에 즈음하여 면민의 성원에 힘입어 1년여간 공모기간을 거쳐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최우수작에 선정된 조전마을 장지걸씨 작품을 사남면민현장으로 2011. 3. 11공표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희맞이 어르신 축하선물 전달

사남면사무소(면장 강연주)에서는 제40회 어버이날을 맞아 2012년 고희를 맞이한 관내 어르신 87명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도모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19대 사남면장을 역임한 채경규(1991 ~ 1996년)면장 재임 시절부터 매년 펼쳐오고 있는 사남면의 특색사업으로 올해 21번째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고급 수저 세트를 전달하여 뜻 깊은 고희를 맞도록 하였다.

용현면 용현면 선진마을회관(경로당) 준공식 가져



사천시 용현면 선진마을에서는 지난 5월 8일 마을 주민 및 지역인사 100여명을 초청하여 마을회관(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선진마을회관은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른 마을회관(경로당)과 차별화하여 특색 있게 지어졌다.한편 이날 준공식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에 맞춰 개최되어 더욱 의미있었다.

축동면 축동면 남·여지도자협의회 도로변 코스모스 심기 활동 전개



축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최용범)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명순)은 지난 4월 23일 사다~예동 간 도로변(지방도 1002호선)에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여 코스모스 심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아름답고 평온한 농촌의 모습을 담아냈으며, 사천시 관문으로서 외부방문객에게 깨끗한 사천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곤양면 시민 법률 무료상담 개최



사천 수양로타리클럽에서는 지난 4월 23일 지역민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곤양면사무소 2층에서 시민 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수양로타리클럽에서는 2011년부터 곤양면, 서포면, 곤명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무료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박

종연 변호사, 문정근 법무사, 송익현 법무사가 상담자로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20여명의 주민들에게 유익한 법률 정보 기회를 제공했다.

곤양청년회 관내 경로당에 음료수 기증

곤양청년회(회장 김용태)에서는 관내 경로당 32곳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하는 음료수는 총35박스(현금 환가액 1백만원)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각 마을별 경로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또한 곤양청년회는 지난 해 면민노래자랑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고, 올 4월에는 관내 16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1일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다.

곤명면 제13회 곤명면민체육대회 개최



곤명면체육회(회장 오태환)에서는 지난 4월 24일 (구)곤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곤명면 기관단체의 후원으로 제13회 곤명면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600여명의 면민과 출향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곤명면 풍물패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시작한 체육대회에서 총 6개팀이 다채로운 경기를 치렀다. 이날 대회결과 지난 우승팀인 태봉팀과 덕천강팀이 공동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3위는 봉사팀에게 돌아갔다.

곤명면 본촌마을 “딸기수확 무료 체험행사” 개최

곤명딸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딸기수확 무료체험 행사’가 지난 5월 16일부터 5일간 사천시 곤명면(면장 이정호) 본촌마을에서 열렸다. 본촌마을 이장 김경희(50세)씨가 운영하는 시설하우스에서 참가비 없이 진행된 체험행사에는 시민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딸기 하우스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맛보는 체험뿐 아니라 딸기의 생태를 알아보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고, 농업인들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서포면 서포면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개최



제12회 서포면민 체육대회 및 제8회 경로잔치가 5월 12일 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내주민, 각종 단체회원 및 단체장, 서포면사무소(면장 천인석) 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풍물패 공연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부 체육행사에는 22개 마을이 10개의 팀을 구성하여 9종목의 경기를 치렀고, 오후 2부 경로잔치 행사에는 마을별 노래자랑, 국악한마당, 경품추첨 등의 행사가 열려 어르신들뿐 아니라 참석한 서포면민이 하나 되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제1회 서포초등·중등학교 총동창회(한마음 축제) 개최

서포초등·중등학교 교우들의 통합동창회(한마음 축제)가 지난 4월 22일 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서포주민이 곧 동문이라는 특별한 속에서 약 500명이 참여하여 단체졸업기 등 함께할 수 있는 팀별 활동으로 서로간의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서동 동서동, 『나눔자전거』전달식 가져



동서동주민센터(동장 노영주)와 동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찬)은 지난 5월 4일 대방초등학교에서 『나눔자전거』 전달식을 가졌다. 2월부터 진행해 온 나눔자전거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나눔자전거를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의 대방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상반기 경로당 간담회 가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동서동 분회는 지난 5월 9일 동서동주민센터에서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보조금 집행방법 및 경로당 활성화 위한 상반기 경로당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경로당 간담회는 회장단간 친목도모와 경로당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선구동 『남원시 도동동-사천시 선구동』 화합과 우정의 자매결연 초청 행사 펼쳐

선구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영식)와 선구동주민센터(동장 이영재)에서는 지난 5월 24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북 남원시 도동동 주민대표(이춘겸 주민자치협의회장, 백남규 동장, 조영연 시의장 외 42명)를 초청하여 영호남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매결연 초청 교류행사를 가졌다. 선구동과 도동동은 지난 2000년부터 영호남 형제자매의 인연을 맺고 매년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우의와 친목을 다져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남원시 도동동의 초청에 따른 답례로 선구동에서 초청하게 되었으며, 자매결연도시 교류가 열 두해를 맺은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상호 교류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편 내년에 도동동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선구동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

선구동건강위원회(위원장 서창현)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함께 신바람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중에 있다. 신바람 건강체조교실은 5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시간 가량 선구동 소재 민강공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약 6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에 관심 있는 사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올해 선구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건강한 선구동을 만들기 위해 한의약 한방허브교실 운영,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공원 만들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서금동 동서금동 경로 효(孝)잔치 개최



정대구 초록21(구 동서금동청년회) 회장 및 회원들은 지난 5월 13일 서금동 횡잡일원에서 관내 70세이상 노인 500여분을 모시고 제14회 경로 효(孝)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이벤트 비용을 배제하고 삼천포와 팔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싱싱한 생선회 한 접시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대접하고자 하는 “작은 효”를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동서금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실시

동서금동은 자연보호동서금동협의회(회장 김대진)주관으로 5월 24일 동금동 물양장에서 동 전조직단체원과 유관기관 및 관내 초등학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동서금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팔포 및 서금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양 오염물과 한해전변에 날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민방위 지진해일대비 시범훈련 실시

동서금동은 5월 24일 오후 2시 동금동 물양장에서 2012년 민방위 지진해일 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동서금동 조직단체원과 7개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훈련에 직접 참여했으며, 정민규 사천시장을 비롯한 재난관련 단체, 주민 등이 본 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발생시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신속한 대처요령 습득으로 재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주민대피, 익수자 발생 시 구조방법, 건물붕괴 시 매몰자 구조 방법 및 응구복구 순으로 진행했다.

별용동 사천 동아썩크, 벌리경로당에 싱크대 기증

벌리동 소재 동아썩크 유남재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8일 벌리동 벌리 경로당에 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기증했다. 평소 벌리경로당 할머니들이 작은 나무탁자 위에 가스렌지를 두고 요리하고, 화장실에서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별도의 공간에 직접 제작한 썩크대와 수납장을 기증하게 되었다.

어버이날 맞아 풍성한 잔치 열려

별용동주민센터(동장 정한용)에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각 마을 별로 경로잔치 행사를 열었다. 용강주공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경로당에서 통장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등 경로효친을 실천했다.

향촌동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방문노인건강 미용행사 실시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대환)에서는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상향경로당에서 노인건강 미용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향촌동 주민자치 학습프로그램인 뷰티아카데미 강사, 수강생 및 주민자치위원 등 10여명은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어깨 안마, 두피마사지, 손마사지, 얼굴마사지 및 팩, 아로마테라피 등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노인건강 미용행사는 매월 경로당별로 돌아가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봉사단체 동삼회 경로위안잔치 개최



향촌동 지역봉사단체인 동삼회(회장 정영춘)는 지난 5월 8일 한국폴리텍대학 향공캠퍼스 강당에서 관내 어르신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4회 경로위안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또한 경로효친과 효행상을 드높이고자 사천시 숲피길 탁성태 어르신을 비롯한 4명에게 장수상, 장수 부부상, 화복상을 수여하여 내·외빈 모두가 흥겹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남양동 제44회 남양동민체육대회 개최

사천시 남양동(동장 조현문)에서는 지난 5월 13일 정민규 사천시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남양동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남양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남양동민 체육대회는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성공개회를 기원했으며, 남양동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부여하는 최대의 축제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체육대회 9종목과 2부 동민화합 노래한마당으로 진행되었고, 동민전체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터널하우스 가꾸기로 경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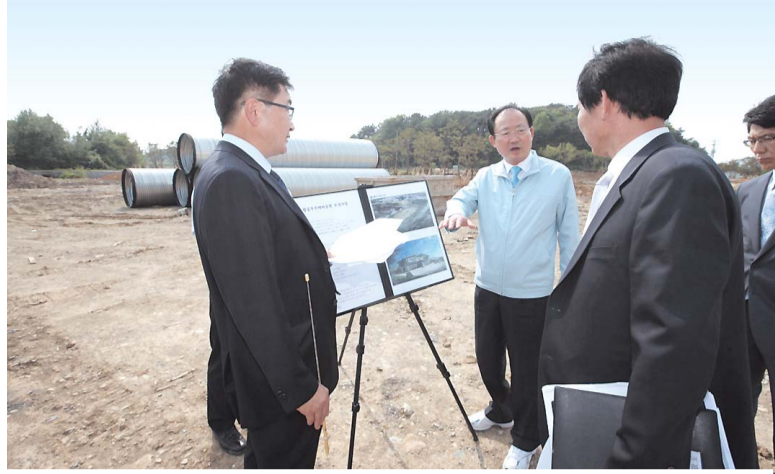
남양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석집)에서는 미용 해안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성 터널하우스 가꾸기 행사를 지난 5월 25일 회원들과 함께 실시했다. 김석집 위원장은 작년의 재배경험을 거울삼아 올해는 멋진 하우스터널로 만들기 위해 퇴비시비, 잡초제거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아업 어르신들도 함께 경관을 조성 하는 데 참여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공사 현장점검

정만규 시장 시설물 추진상황 점검·행사지원시설 보완 지시

정만규 사천시장은 읍면동 순방을 모두 마치고 지난 5월 8일 공사 중에 있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소재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공사를 방문하여 공원시설물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각종 시설물의 완벽시공과 미비시설인 행사장 바닥정비, 행사지원시설(전기, 상·하수, 급수대 등)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09년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87억원

이 투입되어 123,168㎡의 부지에 97,016㎡의 공원조성과 주변도로 781m를 개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8회 항공우주엑스포" 및 "사천농업한마당축제"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본 공원은 사천강을 접한 사천읍·정동면 지역 아파트단지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장과 산책공간으로 활용되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만규 사천시장이 정동면 일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공사를 방문하여 공원시설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정용 다목적 유용미생물배양기 개발

사천시·지엘바이오 공동 개발...지난 17일 특허등록



사천시에서는 유용미생물(EM)을 각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유용미생물 완제품을 주식회사 지엘 바이오(대표 윤성배)와 공동 개발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사천시는 2011년 1월 31일 특허 출원을 하여 2012년 5월 17일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가정에서 쉽게 배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유용미생물(EM)

배양기는 요구르트, 청국장 등의 발효는 물론 고추, 무, 고구마, 감 등 각종 채소나 과일을 건조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자외선 살균 램프를 통해 유아, 주방용품 살균이 가능하게 설계되었고, 특히, LED 램프가 추가되면서 절전과 조명 기능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되었다. 다목적 유용미생물(EM) 배양기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는 농약, 화학비료를 50%이상 줄일 수 있고, 가정에서도 쓰고 있는 세제를 50%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버리는 쌀뜨물을 EM으로 발효시켜 퇴비로 활

용함으로써 하천오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는 물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할 수 있다. 특히, 유용미생물(EM)은 배양하는 과정에서 강산성(PH 3.5 이하)이 되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성에 약한 단점(PH 4.5 이하에 사멸)이 있어 적당량의 물에 희석액을 만들어 사용하면 구제역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잘 활용하면 구제역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2년 경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비 25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92백만원을 확보하여 미생물배양기 완제품 460대를 제작하여 선정된 농업인 및 시민 460명에 대해 6월 중순에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거쳐 각 가정에서 배양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관내 항공 부품업체 호황의 날개단다

사천시 소재 (주)샘코 스피릿사에 300억 납품계약

사천시 소재 (주)샘코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미국 최대 규모의 항공기 부품업체와 300여억원 어치의 보잉기 비상 도어 납품 계약에 성공했다. 경남도가 설립한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의 도움에 힘입어, 샘코이창우 대표와 스피릿(Spirit AeroSystems)사 수석 구매부

장은 김두관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수출계약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계약으로 샘코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2800만 달러를 받고 스피릿사에 납품하게 된다. 샘코는 이번 수주물 계기로 세계적인 항공기 도어류 제작 업체로서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일관성객 도어를 비롯한 각종 민항기 도어류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27년 설립된 스피릿사는 본사가 미국 캔사스주 위치타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구조물 전문 제작업체로서, 종업원 수가 1만5000명에 이른다. 이창우 대표는 "이번 계약은

국내시장에 의존적인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잉의 1차 벤더인 스피릿사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계약 금액을 떠나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도어 전문 생산업체인 샘코는 지난 2010년 5월 국내 최초로 러시아 수호이와 2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에는 5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시정 박 소식

제1회 사천 여성 백일장 성황리 개최

'여성 문학시대의 개막을 알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천시 후원하고 사천시 문인협회(회장 박영배)가 주관하는 제1회 사천시 여성 백일장이 지난 5월19일 10시 노산공원(박재삼 문학관) 일원에서 여성국회 회원 및 김경숙 도의원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참석



속에서 좋은 작품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초청 심사위원인 강희근(경상대 교수), 하야무(경남 소설가협회 회장) 그리고, 문인협회 몇몇 회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장원은 사천시 죽림동 구혜현 양의 문문/노

산공원이 당선되어 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차지했고, 차상에는 진주시 가좌동 김효숙씨의 문문/노산공원이, 차하로는 조복미(사천 정동), 김희주(사천 용강) 2명이 차지했으며, 참방으로는 김은순(사천 용강) 외 13명이 영예를 안았다. 강희근 심사위원장은 심사 논평에 앞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사천시 여성들의 문학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박재삼 문학관과 호연재의 옛터에 새로운 기운이 살아나 참여자들의 작품성도 타 지역에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 가운데 "노산공원"이란 시제로 성황리에 거행됐다. 금빛 햇살이 일렁이는 아침 일찍부터 지긋한 나이에서 분빛 고운 아가씨에 이르러까지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떠나 할것 없이 긴장된 눈빛으로 점수를 하는 모습에서 잠자 사천 여성 문학시대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고,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 나온 꼬맹이들을 포함해 응원 나온 가족들까지 모처럼 노산공원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또한, 사천 문인협회 회원들의 꼼꼼한 준비와 친절한 안내로 참여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경남은행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지점장 강명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5일 사천시청을 방문하여 사천시에 '생필품세트 및 카네이션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이 전달한 생필품세트와 카네이션은 사천시 관내 독거노인 가정 50세대에 지원됐다. 경남은행 강명조 지점장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어르신들의 가슴 한 편을 채워주는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5월 한달을 '카네이션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경남의 18개 시·군과 울산광역시까지 추진한 독거노인세대에 생필품세트와 카네이션을 지원했다.

경남은행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지점장 강명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5일 사천시청을 방문하여 사천시에 '생필품세트 및 카네이션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이 전달한 생필품세트와 카네이션은 사천시 관내 독거노인 가정 50세대에 지원됐다. 경남은행 강명조 지점장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어르신들의 가슴 한 편을 채워주는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5월 한달을 '카네이션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경남의 18개 시·군과 울산광역시까지 추진한 독거노인세대에 생필품세트와 카네이션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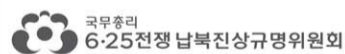
사천 - 중국옌량항공산업기지 교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황호림 지사장)는 지난 30일 진주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와 중국 옌량국가항공산업기지간 교류회를 가졌다. 옌량국가항공산업기지는 중국 내 최초의 국가첨단항공산업 개발지구로, 국립 개발 및 개혁위원회로부터 2004년 8월에 승인을 받아 2005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중국 산시 지역의 우수한 항공자원을 통합하여 300여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한 항공기 제조 및 부품 생산, 신소재 연구개발, 훈련 및 종합 항공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소개에 이어 옌량국가항공산업기지의 역할을 비롯해 중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양국 기간의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 '사천 항공·우주 MC-옌량국가항공산업기지-한국산업단지공단'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교류회에 참석한 이창우 MC 회장(주)샘코 대표이사)은 중국 항공산업이 정부주도 방위산업에서 민간 항공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국이기도 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지속적인 해외교류를 통한 사천 항공산업의 발전을 기대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산시지역 항공업체들과의 교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사천항공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6·25전쟁 남북피해자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추모사업과 생사확인·송환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고처: 거주지 시·군·구청 / 신고문의: **1661-625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안내

- 기간 : 2012. 6. 1 ~ 2012. 6. 30 까지
- 방법 : 직접신고 또는 인터넷 (www.nhic.or.kr 또는 4insure.or.kr) 이용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831-0123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이용대상 : 노인학대 신고·상담관련 누구나
-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577-1389 ※365일 24시간
혹은 ☎055)222-1389
- ▶ 사업내용 : 노인학대상담, 예방교육, 예방홍보, 웹터사업
- ▶ 홈페이지 : www.gn1389.or.kr



201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신청안내

- 2012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12. 6. 1 ~ 6. 8(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및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지원종류 : 주민등록증, 국민건강보험증 및 직전월 납부영수증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 또는 주30시간 이내 (65세이상은 주16시간 이내)
 - 임 금 : 일반(4,580원×근로시간), 교통비(3,000원) 주·월차수당, 4대보험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2. 7. 2 ~ 11. 30(5개월)
 - 모집인원 : 60명(일반 42명, 청년 18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대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가구소득 135백만원 이상인 자,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
 - 사업기간 : 2012. 8. 1 ~ 11. 30
 - 모집인원 : 40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아 2년 초과참여자 또는 종도포기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결과와 근로미약으로 판단된 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예우!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을 세운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의 귀감이 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더불어 사는 균형 있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 된 국민, 보훈문화가 함께합니다.
- 6월 6일은 제57회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을 가집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립니다. 이날만큼은 유족과 유해를 삼가하고 가족과 함께 국립묘지, 또는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며 조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 현충일 조기계양 방법
 - ⇒ 깃봉에서 깃 면 너비만큼 내려서 계양
 - ⇒ 집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계양



〈우주항공소년 또록이의 항공 이야기-102〉

날아다니는 주유소 -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는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여 항공기 체공시간을 연장시킴으로서, 작전 지속시간과 작전영역을 확장하고 무장 탑재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기를 말한다. 즉 공중급유기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으며, 후미에 플라이닝(flying-boom)이라는 특수 급유장치가 장비된 대형 수송기를 말한다. 공중 급유는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며, 정식 민간 재급유는 알려진 바 없다.

공중급유기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므로, 전투기가 이륙전에 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 장착하여 이륙후에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공격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무장 장착이 가능하고 원거리까지 공격이 가능하여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공중급유기는 전투기 등에 대한 공중급유 지원임무뿐만 아니라, 인원과 화물 등도 수송이 가능한 다목적 항공기로 개발되고 있

다. 군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1대의 전투력이 전투기 10~20대의 전력과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한 번 급유 받으면 출격물은 두 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연료 급유량을 줄여 무장탑재량도 늘릴 수 있다. 또 체공시간이 늘어 조종사와 정비사의 업무량, 항공기 부품의 마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군은 소음피해 보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고로 집행되는 소음 감소 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KC-135, KC-10, KC-767 등의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다. KC-767은 보잉사의 B-767을 개조하여 만든 공중급유기이다. B-707을 개조한 KC-135, DC-10을 개조한 KC-10 등 보통 공중급유기는 민간여객기나 수송기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국 BAe사가 개발한 VC-10과 러시아 수송

기 IL-76의 공중급유 버전인 IL-78 등이 공중급유기로 운영중이다. 공중급유기의 종류에는 KC-135와 같이 내부에 화물은 탑재하지 않고 급유기 로만 전용하는 경우와 KC-10처럼 공중급유와 화물수송이 가능한 콰이콰이 형이 있다. KC-10의 경우 내부에 화물칸이 설치되어 있어, 지원장비와 인원수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는 현재 세계 30여개국에서 약 900여대가 운용 중인데 미국이 약 50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소규모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터키 등도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지난 1994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희망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김형래

햇살

씨앗 만지작거리던 흙이 기여웠을까
봄에 터뜨려 알뜰히 익혀야 한다고
지난번 머물다 간 산 아래 저명한 살림꾼
누군지 벌써 이름조차 가물가물 하지만
아무리 비좁아도 스스럼없이 내려설만해
한가로이 안겨주고 훗날은 진동할 때
까마득한 청공에서 따라 쓰는 흰 구름

습기, 온기로 이용하면 약초를 키운다고
세인이 서로 앞당겨 맞붙수록
후렴을 저장하여 거둬난 신세대 수플

누가 길러야 옳은 정적 이루겠나?
시끄러운 도시에서 태어나 하경하듯
요점만 비교하면 답 나올 리 만무하고
직접 심어 싹틔울 때의 소리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
날알 한 개씩에 얽힌 연약 같은 즐거리로
여명에 합장 싣고 초록빛 날아 우아한 날
유형면 / 변근철

6월 보훈의 날과 현충일을 맞이하며

6월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散華)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호국보훈의 달이자 6월은 현충일(顯忠日) 58주년과 함께 6.25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20여년 전부터 1년 내내 현충일을 비롯한 국경일과 기념일이 되면 운수종사자들과 교통사고 줄이기와 함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차량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맞이하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를 낳고 국토를 영원히 빼앗길 뻔 했던 참으로 아슬아슬한 역사의 위기를 겪은 것이다.

필자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20년 전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그들 가족은 물론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되신 분들을 위해 매년 6월 한 달 동안 전국 언론 매체에 보훈의 달의 의미와 현충일과 6.25 특집이란 글을 실어 온 전기사님과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등에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그에 따른 계몽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매달마다 보훈가족들을 찾아뵙고 미용봉사와 그에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부식을 비롯하여 작은 성금을 모아 30여명께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6월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하여 정부나 언론 지자체와 각 단체에서 그분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를 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지만 한달만 지나면 그것이 말잔치뿐이라는 것을 해마다 느끼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풍족한 연금 혜택은 물론이고 영웅다운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가?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가유공자다운 예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달을 보훈의 달로 정하고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추모의 날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의 날,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국민화합과 단결의 날로 제정해 놓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봉사단체

도 국가와 민족의 인위를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친 그들 가족이나 부상당한 상이용사촌 등에게 보훈가족을 정기적으로 찾아뵙어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작은 성금이라도 전달함으로써 그분들의 값지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에 보훈의 기능도 단순한 생활보장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분들이 참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가는 세대에게 우리가 평화로운 조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현충일뿐만 아니라 6월 한달 중 한 두번이라도 가까운 현충탑이나 국립묘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울러 해마다 나라사랑과 함께 큰나무 뚝치 달기 등에 동참을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 권영수

산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높고 낮은 산들로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큼 등산을 좋아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도 드물 듯 싶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 되면 등산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전국의 크고 작은 산들은 북빈다. 나 역시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등산을 자주 해왔던지라 커서라도 자주 산엘 가곤 한다.

그러나 요즘 산에 갈 때마다 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들로 기분이 좋지 않다.

특히 요즘은 개인위주가 아닌 산악회 위주로 등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로 움직이는 산악회 회원들을 위해 이곳

저곳에 이정표를 놔두었다. 그 이정표라는 것은 종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 또는 써지 않는 비닐 재질로 되어있어 환경오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길잡이 역할에 쓰여져서 환경에 어지러기 일쑤다.

또한 자신들의 산악회가 다녀갔다고 나무 위 여기저기 깃발들을 걸어두고 가는데 그 역시 써지 않는 재질들이라 환경에 유해하다.

게다가 얇게처럼 숲 풀 사이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산에서의 취사행위, 꽃과 나무뿌리기, 흡연 등은 사실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산에 대한 예의다. 우리나라에서 등산이 일반적

레지가 된 것은 불과 20~30년 안팎이다. 그동안 유명한 산악인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스포츠 여가에 대한 관심, 시간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을 찾지만 정작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에 대한

증가하는 등산객들의 수만큼 등산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이려면 등산하기 전, 몸이 아닌 마음가짐부터 산에 대해 준비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등금동 / 박은희

어머니의 말씀

전세로만 있다가 새 집을 산다고 어머니께서 돌려주시던 텃밭을 팔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어릴 적 나의 꿈과 추억이 묻어 있는 작은 동산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심장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까 싶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마음 아팠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늘 그렇듯 집에서 손수 일하시며 여러 자식을 걱정하고 계시지만

같다. 돌아가시는 그 해 봄에 결혼을 하고 내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나를 보시며, "10년만 젊었으면 너를 도와줄텐데....." 하며 힘든 몸을 일으키며 하신 말씀은 아직도 나의 못난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살아 생전에 남겨 놓으신 말씀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책장을 열 때마다 나를 일깨워 주며 삶의 오르막에서 힘내라고 아직도 조그마한 내 손을 꼭 붙잡아 준다.

"가난은 죄가 아니니 힘들어도 본마음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

"사람 나이는 밤이슬이란다. 늘 소중히 여기거라."

"호랑이 콧등에 메밀 껍질 같이 먹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 가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은 이제는 내 자식에게도 살아가는 큰 힘과 빛이 되어 준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푸르른 6월의 하늘처럼 늘 맑게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리동 / 김 생

제1회 사천시 여성백일장 장원 입상작

노산공원

비린내 가득한 팔포를 올 때마다
아이와 노인은 이곳을 올랐다

노란 모자에 솜사탕을 권 아이
빨간 시장 표 봉다리들 든
백 바지에 백구두를 신은 왕년의 신사

입구부터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공공대는 아이
작은 손을 잡아주던 주름진 손

열일곱 해가 지난 지금
다시 이곳에 올라본다

노란 모자에 솜사탕 대신
가슴에 추억을 담은
긴 계단의 여유와
오래된 빛깔의 그림자를 밀어보며
부푼 장단지에 한껏 힘을 더해본다

가쁜 숨 몰아쉬며 오른
그 옛날 비둘기 왕국의 끝, 바다에는
푸른 이야기가 아직도 넘실거리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당신을
바다가 전하는 냄새로, 소리로
다시 만나본다

창원시 벌운동 / 구혜현

제1회 세계물의 날 글짓기대회 대상 입상작

나의 또 다른 가족인 물을 사랑하자

나는 작은 겨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느꼈다. 그날따라 너무 추워서 우리 집의 수도관이 얼어 버린 것이다. 14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 날 아침부터 비상 사태가 걸린 것이다. 다행히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오후 2시쯤에 물이 나와 나는 무사히 확인에 갈 수 있었다. 그 날의 일을 계기로 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단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데, 매일 더러운 물로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지만 지금도 물이 무한한 것처럼 물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낭비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은 물이 없어서 물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지구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다면 물을 지구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은 공장주인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집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물 부족 문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물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낭비하고 더럽히는 물을 정화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닷물을 물 대신에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은 부족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닷물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물 대신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에는 소금 성분이 많고 소금을 걸러내는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았다. 역시 물을 절약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시설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물의 날 기념 글짓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다.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다. 어디선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낭비되는 소리가 들리면 슈퍼맨처럼 달려가서 잠그고, 설거지를 할 때 세계를 지나치게 사용할 때면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겠다. 이렇게만 물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천시여자중학교 2학년 3반 임

백천사에서

날카로운 솔잎 하나도
흙으로 삼여 낸 세월만큼
이름 없는 돌맹이까지도
지으신 뜻 오롯이 남아있어
억만겁 시공도 무상하여
인연꽃은 피고 또 지는가

바다는 수만리 밖에 있어도
물결은 늘 가슴에 일고
구름은 모였다 흩어져도

갈 길은 오로지 한 길이니
켜켜히 쌓인 회한까지도
한 찰나에 명멸(明滅) 하리라

달빛 멈춘 뜰안에
온 세상 참빛이 가득하여
밝은 창 우주를 열어젖히니
화장세계가 여기인 것을
지천으로 환생한 꽃으로 피어
꿈꾸는 너의 미소를 본다.

청암

벼 보험, 5월 2일부터 판매 시작

올해 처음으로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으로 추진되던 벼 재해보험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하여, 5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발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

가당 4,000㎡이상(논지당 가입 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 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5%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 11년 평균보험료는 10a당 18천원이며, 농가부담은 4.6천원 수준

벼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재배시기(과실은 보장재해)에 맞추어 판매될 예정이다.

▲ 품목 판매예정
고구마(5.1~5.31), 옥수수(5.1~6.15), 마늘(10.4~11.30), 매실(11.15~12.7)

지난해에는 태풍 무이과와 병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부담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부안에서 벼를 재배하는 김○○(59세)는 총 31논지(면적 145,226㎡)를 662천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1억 2천8백만원 가입하였으며, 지난해 태풍 무이과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확을 앞둔 논지가 수몰 및 도복되어 부담한 보험료의 103배인 6천8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설렘이 있는 기차여행, 비토섬 사랑이야기’ 열차관광상품 개발...외래관광객 유치 총력

사천시에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이용률 향상을 위해 열차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마케팅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코레일과 공동으로 ‘설렘이 있는 기차여행, 비토섬 사랑이야기’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사천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코레일 관계자 및 여행업체 관계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관광 토크어를 실시하는 등 코레일 측에 그동안 많은 공을 쌓아왔던 결과이다. 또한, 철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코레일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 패키지를 운영한다면 철도관광이 사천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관광 패키지 ‘설렘이 있는 기차여행, 비토섬 사랑이야기’는 사천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산역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관광 상품으로써 부산·경남권 싱글 남·여(25~37세)를 모객 대상으로 무궁화호를 이용하여 사천 완사역에 도착한 후 사천지역을 관광한 뒤 다시 열차를 이용하여 귀향한다는 내용이다.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커플을 정해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천 비토섬에 가만 반드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 주는 것은 물론 사천의 관광홍보도 병행하면서 사천이 새로운 관광지



사천시와 코레일은 ‘설렘이 있는 기차여행, 비토섬 사랑이야기’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실시하는 관광 상품의 주요 목적이다.

본 패키지는 지난 5월 12일에 처음 실시하였고, 싱글남·여 40명이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하여 13시 30분에 사천 완사역에 도착한 뒤 곤양 비봉내 마을 대나무 체험을 한 후 다솔사와 비토섬을 탐방하고 사천대교와 선전리성, 조영군총을 거쳐 다시 완사역으로 돌아와 오후 6시15분에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여 부전역으로 귀향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6월 초순까지는 매주 주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6월 중순부터는 매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천시와 코레일부산경남본부에서는 본 관광 상품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경우에는 SBS에서 실시하는 “ 짝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천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까지 협의했다.

한편 사천시에서는 철도이용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2월 진주 KTX역 개통에 대비하여 중국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재 삼천포항에서 제주간 카페리호를 운항하고 있는 두우해운(주)와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하여 진주 KTX역을 통해 중국관광객을 사천시로 유치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 두우해운(주)측과 철도요금 할인 등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사천시는 앞으로의 관광객 유치전략은 축제 등 어느 한 분야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바다와 철도 그리고 항공 등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패키지를 선보이는 것만이 외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드림스타트아동 지역 병원과 연계 건강검진 실시

아동 215명 대상 성장기 질병 및 신체이상 집중 검사

사천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삼천포서울병원과 메리놀내과의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건강검진을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동지역) 215명이 각각 서울병원과 메리놀 내과에서 체위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혈액검사, 성장판 검사, 비만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성장기 아동의 질병 및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과 성장발달에 이상이 있는 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각종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병원과 메리놀 내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에 참여하여 건강 검진비를 할인하는 등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천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삼천포서울병원과 메리놀내과의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12 사천시 ‘붕어빵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15세대 45명 참여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기여

사천시에서는 가족간 유대강화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토요일무제로 인한 가족단위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붕어빵 가족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천시『붕어빵가족자원봉사단』에는 15가족 45명이 참여하여 지난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6월 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가족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쌀뜨물 발효액 및 EM 효균만들기 교육을 시작으로, 두레농장에서 친환경농

산물 체험 활동과 관내 하천 정화를 위한 EM 효균 투척, 환경정화 활동하기, 발 패티큐어 교육을 받아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하여 발마사지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하는 평가를 마지막으로 수료하게 된다.

사천시에서는 『붕어빵 가족 자원봉사단』참여를 계기로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세대와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사천시 붕어빵가족자원봉사단에는 15가족 45명이 참여하여 지난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6월 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사천시 6월중 체육행사 안내

대 회 명	내 용
제11회 사천시장기 남녀 배구대회	○ 기 간 : 2012. 6. 3(일) 10:00 ~ 18:00 ○ 장 소 : 사천체육관
제5회 사천시장기 태권도대회	○ 기 간 : 2012. 6. 3(일) 11:30 ~ 18:00 ○ 장 소 : 삼천포체육관
제9회 사천시장비 고등학교 스포츠타이틀 체육대회 및 제52회 도민체육대회 고등부 선수 선발대회	○ 일 시 : 2012. 6. 8(금) 09:30 ~ 16:00 ○ 장 소 : 사천공설운동장 외 5개소 ※ 제52회 도체 고등부선수 선발종목 육상 외 5개 종목
제13회 사천시장기 족구대회	○ 기 간 : 2012. 6. 10(일) 10:00 ~ 18:00 ○ 장 소 : 사천 보조축구장

호연재(浩然齋)관련 자료 수집

지금으로부터 240여년 전 우리 고장 삼천포 지역에는 노산의 호연재를 비롯한 서동의 경운재(景雲齋), 동동의 용남재(龍南齋) 등 마을마다 20여개 신학문의 요람인 서당(書堂)이 있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고장의 선각자들은 서당에서 주경야독하는 야학당(夜學堂)을 운영하면서 주로 실학(實學)을 위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등 사서 삼경을 배우고 호연지기를 키워 일찍이 영남의 팔문장(八文章)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지난 2009년 이 고장의 대표적인 서재(書齋)인 노산의 호연재를 원형 복원하여 옛 선조님의 향학열을 받받고 사천이 문향(文鄕)으로써 빛나는 화풍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호연재에 전시 보관할 각종 사료인 교재, 교구, 서적, 사진 등 관련자료를 수집 전시 보관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자료수집 종류 -

- 우리 선조님들이 배웠던 서적, 교구, 교재와 관련된 각종 자료
- 호연재의 신 교육과 관련된 사진, 고미술품 및 골동품 등
- 수집기간은 연중입니다.

위의 수집된 사료와 물품은 호연재 내 전시관에 영구 보관 보존하여 수집된 사료에 대하여는 기증자의 이름, 수량 등을 표기하고 영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자료 제출처 :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 831-2710)
비영리법인 노산호연재 운영위원회 (☎ 010-3105-0045)

호연재 운영위원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암 검진 받으세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0% 완치될 수 있습니다.

- ▶ 검진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통지서 받으신 분
- ▶ 검진기관
읍,면지역 : 박내과, 신내과, 사천제일의원, 성모병원, 미래의원, 보람산부인과
동지역 : 김내과, 삼천포내과, 정현내과, 메리놀내과, 동신의원 서울병원, 제일병원, 한마음병원, 늘푸른산부인과.
- ▶ 검진종목 :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개인별 검진 종목을 따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구 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및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소아암	소아백혈병	18세미만 소아백혈병환자	최대3,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조사 실시)
	소아암	18세미만 소아암환자	최대2,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모든 암 종	(최대3년간 지원) -법정본인부담금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 -등록환자가 계속 치료 중인 자	(최대3년간 지원)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2012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기준	
폐암 (타 장기 전이된 경우 제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하 위 50%	(최대3년간 지원)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최대 1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부과 기준 (직장:76,000원, 지역:81,000원 이하)	

*문의사항 : 사천시 보건소 (☎ 831-3565)

사랑의 헌혈 행사

-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됩니다. 혈액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헌혈행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헌혈증서 나눔방』을 통해 헌혈자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수혈이 필요한 사천시민에게 지원합니다.

헌혈 일시 및 장소

- ◇ 헌혈일시 : 2012. 6. 20(수) 10:00~16:00
- ◇ 장 소 : 시청 광장(헌혈버스)

헌혈 가능 연령 : 17세 이상 ~ 65세 미만의 건강하신 분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사와 서비스

- 혈액형, 간 기능(ALT), 매독, AIDS, B형·C형 간염 등 16개 항목
- 혈압 측정, 헌혈증서 교부 및 기념품 증정
- ◇ 아침식사는 필수적이며, 헌혈 전날과 헌혈 당일 금주
- ◇ 신분증 반드시 지참(실명 확인)

헌혈증서 지원

- ◇ 지원대상
-백혈병, 수혈 등으로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읍면동장 추천자
-헌혈증서 제공자 및 가족
- ◇ 지원매수
-1인 최고 100매까지 지원
*증서 1매는 1 pint(320ml) 수혈 가능

헌혈 문의 ⇒ 사천시보건소 의약담당(☎ 831-3629)

일본뇌염 및 티·디 추가 예방접종 실시

사천시보건소와 아래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중학교 1학년(5차) 일본뇌염 추가접종과, 초등 6학년(만11~12세) 티·디 추가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추가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성인까지 유지시키는 중요한 접종이오니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추가접종

접종 대상자	접종기간	접종장소	접종 대금	비고
중등1년(만12세) ★사백신 접종자	5. 7 ~ 6. 30 월~금요일 (09:00~17:00)	보건소예방접종실 /보건지소	무료	읍면지역 보건지소 접종 가능 ★사천시거주확인용
		삼천포제일병원, 이신규소아과의원, 이흥기 가정의학과 의원, 사천서울아동병원, 김소아청소년과의원, 신내과의원, 사천제일의원, 사남의원		

* 의료기관 이용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티디 추가접종

접종 대상자	접종기간	접종장소	접종 대금	비고
중등1년(만12세) ★사백신 접종자	5. 7 ~ 6. 30 월~금요일 (09:00~17:00)	보건소예방접종실 /보건지소	무료	읍면지역 보건지소 접종 가능 ★사천시거주확인용
		삼천포제일병원, 이신규소아과의원, 이흥기 가정의학과 의원, 사천서울아동병원, 김소아청소년과의원, 신내과의원, 사천제일의원, 사남의원		